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품어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역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을 수호하며 이 땅위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무모한 침략전쟁도발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었다.

적들이 대규모의 침략전쟁영습을 벌여놓고 공화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던 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8.25경축연회연설에서 자신께서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들에 나가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의 령토와 령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인 반공격전으로 이행할때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셨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하셨다고 단호히 선언하시었다.

구절구절 령장의 담력과 기개, 애국의 신념이 뻗어나는 그의 단호한 이 선언이야말로 원수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 국군대와 인민들의 가슴속에 승리상을 상징하는 명언으로 자리잡았다. 그때 어떻게 되어 전체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승리의 신심을 안겨준 이 선언이 나오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지금도 1968년 1월 23일 조선인민군 해군 함정들이 미제의 무장간첩 협하는 침략자들에게 대한 응당한 징벌이었다. 그럼에도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감행한 정탐과 적대행위를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어떠한 합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문건에 서명하였다.

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하신 김일성주석의 담력, 원수들이 칼을 휘두르면 우리는 장검을 내들고 원수들이 총을 내대면 우리는 대포를 내댄다는 김정일장군님의 배짱을 그대로 담은 선군령장의 퇴성벽력과 같은 승리의 선언이다. 승리는 결코 물리적대결이 끝난 후에만 오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령장을 모실 때 승리는 이미 전전전야에 판가름된다. 공화국의 빛나는 전승의 력사에는 이미 격전전야에 승리가 확정지어지고 싸우지 않고 적들을 무릎 꿇게 한 승리의 선언들이 수없이 아로새겨져있다. 미제가 남조선의 리승만도당을 사육하여 공화국 전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개시한 1950년 6월 25일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적들의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답할것을 결심하시고 곧 내각비상회의를 소집하시었다. 이미 적들의 대병력이 38°선을 넘어 북으로 밀려오

고있는 준엄하고도 절박한 현실앞에서 누구라없이 심각한 우려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있을 때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한 웃음으로 장내의 긴장감과 초조감을 순간에 날려보내시며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 승냥이는 풍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패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강철의 의지가 넘쳐나는 그의 이 말씀이야말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한 승리의 선언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온 행성을 뒤흔들어놓으시는 승리의 선언들로 적들과 싸우지 않고 언제나 이기는 《무전이승》의 력사를 창조하시었다.

1993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불순채증을 부추겨 공화국의 군사대상들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하였다. 강도적인 요구가 공화국의 단호한 배격을 받게 되

자 그 무슨 《제재》를 운운하면서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로골적으로 위협해나섰다. 당장이라도 일이 날듯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밀려오고있던 1993년 3월 8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진국, 진민, 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전군에 하달하시고 3월 12일에는 공화국 정부가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만일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게 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고 세상에 대고 우리가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44년 전의 어제와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공화국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불패의 위력을 널리 시위하였다. 그때로부터 어언 44년의 세월이 흘렀다.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허나 거의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반도의 정세는 어찌나 오늘이나 여전히 전쟁정세이라는 참예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44년 전

자 그 무슨 《제재》를 운운하면서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로골적으로 위협해나섰다. 당장이라도 일이 날듯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밀려오고있던 1993년 3월 8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진국, 진민, 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전군에 하달하시고 3월 12일에는 공화국 정부가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만일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게 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고 세상에 대고 우리가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만일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게 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고 세상에 대고 우리가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만일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게 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고 세상에 대고 우리가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만일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게 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고 세상에 대고 우리가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만일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게 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고 세상에 대고 우리가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만일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게 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고 세상에 대고 우리가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만일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게 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고 세상에 대고 우리가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만일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게 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고 세상에 대고 우리가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서 미국군이 강행하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대북전쟁영습은 북측을 통일전쟁 종결사건으로 떠미는 자주요인이 되었다. ...김정은제1위원장이 라고 서해 최전선으로 나아가 27IP짜리 작은 목선은 원자로 2기와 초대형 중기타인 4대로 움직이는 핵추진 전제 군대와 인민은 지금 단숨에 적으로 날아가 원수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고야말 북수의 일념으로 가슴을 꿰고있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만일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게 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고 세상에 대고 우리가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만일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야말게 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온 나라에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였고 세상에 대고 우리가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 절세의 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언제나 승리의 력사만을 아로 새길수 있었으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의 진두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승리가 우리앞에 있다

김태룡

가다려 가다려
두고두고 고대하던 성정의 시각
마침내 우리의 눈앞에 왔는가
진에서 힘있게 울린
백두령장 김정은원수의 8.25선언

파편 한조각 날아온대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리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무자비한 징벌에
살아남을 원수 한놈이나 있으라

보라
서남전선에서 동부전선으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 길은
령장의 조국통일대전 화살표
초연이 배인 야전복자락은
승리의 기치인양 전선에 휘날린다

그렇다!
우리의 령토엔 개선이 있어도
우리 정벌의 불바라엔 개선이 없거니
격멸의 포탄 후련히 터친 포신마다에
레이엔 승리의 축포탄 재워
삼천리 하늘가에 쏘아올리리라

오,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를 모시고
기어이 가야 할 내 조국 남녘땅
판가리 최후결전
조국통일대전이 우리를 부른다
승리, 최후의 승리가 우리앞에 있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한자한자 글발로가 아니라
총탄처럼 폭탄처럼 장악하는 이 선언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침략자들을 짓밟개버릴
멸적의 불길로 타고르는 이 명령

얼마나 가슴후련한가
천추의 한이 다 풀리는 령장의 명령
세와 세를 이어 재워오며
사무친 분노로
통일의 열망으로 달아오른 총포탄
놈들의 아성에 퍼부어주 있다는 것이

성스런 우리의 땅, 하늘과 바다에
붙세 한점만 튀어와도

《세계가 주목하는 김정은》

로씨야신문 《웨제란》 제30호가 《세계가 주목하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최고상 수여, 화초계에서 최고의 지위 차지

2012년 네덜란드 베로세계원에 박람회에서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수상식이 있었다. 2012년 네덜란드 베로세계원에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네덜란드 화초리사회, 박람회 국제 화초경쟁심사위원회 성원들, 세계 여러 나라의 200여명의 대표들이 시상식에 참가하였다. 시상식에서는 당선된 화초들에 상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박람회 국제 화초경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일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꽃이라는것을 강조한데 이어 불멸의 꽃에 수여하는 최고상인 1등상과 상장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속에 조선 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에 표단에 수여되었다. 참가자들은 한결 같이 김정일화가 이번 박람회에서 최고상을 받은것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박람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화는 특이한 꽃이 아니다,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것이기에 김정일화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기었다고 말하였다. 박람회 국제 화초경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화가 이번 화초경쟁에서 흠잡을데 없는 꽃으로 평가된것은 불멸의 꽃이 화초계에 서 최고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한것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에 수여된 2012년 네덜란드 베로세계원에 박람회 최고상인 1등상과 상장

김정은 제1위원장의 담력과 배짱, 사상 천외한 전선 시찰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진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이것이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김정은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갈 것이다

리명박역적패당의 극악무도한 동족대결,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정세는 공화국의 근대와 인민을 무한한 복수심으로 끓여 번지게 하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집권후 오늘날까지 공화국에 대한 엄청난 정치군사적도발로 북남관계를 막선하고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국면에 몰아넣었다.

북남대결에 환장한 역적패당은 북에 대해 《함께 살아야 할 동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결의 상대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려왔다. 동족에 대한 《주적》나발을 공공연히 불어대며 북남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교육지침서》 같은것을 발간배포하고 반공화국만화책을 어린

이들에게까지 강압적으로 내돌렸다. 그런가하면 지금이 시각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떠들어대고 그 무슨 《급변시대》, 《통일세》니 하며 《홍수통일》의 허황한 꿈을 꾸고있다.

외세의 반공화국핵소동의 돌격대로 발벗고나서는것으로도 모자라 민족의 머리에 핵침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전쟁머슴군이 되어 광란적인 북침전쟁발장소동으로 외세에게 동족을 침략할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으며 쏠개빠진 리명박역적패거리들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북에 선봉질을 하였다가 되게 얻어맞고 《천주의 한》이니, 《올화동이 터진다.》니 하는 광기를 부리다 못해 감히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

았다. 특히 이 천하패륜의 무리들은 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하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대는 극악무도한 대역죄니, 《통일세》니 하며 《홍수통일》의 허황한 꿈을 꾸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북에 선봉질을 하였다가 되게 얻어맞고 《천주의 한》이니, 《올화동이 터진다.》니 하는 광기를 부리다 못해 감히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

았다. 특히 이 천하패륜의 무리들은 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하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대는 극악무도한 대역죄니, 《통일세》니 하며 《홍수통일》의 허황한 꿈을 꾸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북에 선봉질을 하였다가 되게 얻어맞고 《천주의 한》이니, 《올화동이 터진다.》니 하는 광기를 부리다 못해 감히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

았다. 특히 이 천하패륜의 무리들은 민족의 대국상을 모독하고 크나큰 슬픔에 잠겨있는 동족에게 총부리를 내대는 극악무도한 대역죄니, 《통일세》니 하며 《홍수통일》의 허황한 꿈을 꾸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북에 선봉질을 하였다가 되게 얻어맞고 《천주의 한》이니, 《올화동이 터진다.》니 하는 광기를 부리다 못해 감히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망발도 서슴지 않

정의의 조국통일성전은 누구도 막을수 없다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8.25경축연회에서 하신 언설은 또 한분의 백두산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무한한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으로 우리 해외동포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끓여번지게 하고 있다.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위대한 령장의 단호한 기상이 어린 선언을 접하고나니 일제의 백만대군을 위락 피락하시던 백두산호랑이 김일성대원수님과 한평생 애국헌신의 선군길에 계시면서 우리 조국을 세계적으로 군사우위,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우뚝 올려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거룩한 모습이 안겨와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참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원수들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고 우리 민족의 최대속원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실 천하제일명장,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8.25경축연설은 침략자들에게 내리는 징벌의 선언이고 민족분렬의 기나긴 역사를 끝장낼 력사의 결단이다.

우리 동포들은 8.25의 퇴성을 들으며 최후결전승리를 확신하고있으며 준엄한 시각

이 오면 한몸그대로 육탄이 되어 싸울 결사의 각오로 충만되어있다.

만약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조국의 령도와 령해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그것은 곧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질것이며 침략자들은 위대한 령장을 따라 산악같이 밀려들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 앞에서 쏘아 추리지 못할것이다.

위대한 천출명장을 모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성전을 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으며 이제 삼천리에는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이 환히 밝아올것이다.

재중동포 박춘삼

남조선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울지 프리덤 가디언》 침략전쟁연습이 초대형태풍이 몰아친것과 관련하여 일시 중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각계는 《자연의 태풍은 무서워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서울은 물론 워싱턴도 단숨에 통째로 날려버릴수 있는 공화국의 위력은 두렵지 않다.》며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온 민족의 의사와는 달리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거둬드는 도발과 엄청난 침략전쟁책동으로 하여 다치던 터질듯한 일촉즉발의 전쟁직경에까지 치달고있다.

미국은 북침전쟁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역대 남조선집권세력을 동족대결로 부추기면서 조선반도정세를 끊임없이 긴장시켜왔다.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정책에 적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국 추종하면서 상근과 함께 공화국을 무력으로 해칠 흥계를 꾸며내고 각종 전쟁연습에 혈안이 되어온것이 바로 리명박패당이다. 집권초기부터 리명박패당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 최후의 목표》이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체제통일》 야만에 몰입해 동족을 핏물고 자극하는 못된짓을 수없이 감행해왔다.

한편 리명박패당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은 시대착오적인 《주적》선례를 다시금 재창하면서 《천주》를 운운하며 북침전쟁을 도발하려 기세를 부렸다. 《천안》호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조작하고 이를 계기로 그 무슨 《용진》나발을 불어대며 조선서해를 비롯한 도처에서 미제침략군과 함께 북침을 가상한 각종 명목의 불장난소동들을 끊임없이 감행한것도, 지어 공화

국가를 표적으로 총포탄을 미친듯이 쏟아대며 감히 북침전쟁을 《평양정령》, 《집무실창문타격》까지 운운하면서 전쟁열을 올린것도 리명박패당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툭툭히 명심해야 한다. 저들의 무분별한 도발이 어떤 후과를 빚어낼것인가를, 단 한점의 불꽃이 저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호전세력들이 이 땅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의 상상을 초월한 반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할것이라는 공화국의 원칙적립장과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선언하시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툭툭히 명심해야 한다. 저들의 무분별한 도발이 어떤 후과를 빚어낼것인가를, 단 한점의 불꽃이 저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호전세력들이 이 땅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의 상상을 초월한 반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대답할것이라는 공화국의 원칙적립장과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선언하시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툭툭히 명심해야 한다. 저들의 무분별한 도발이 어떤 후과를 빚어낼것인가를, 단 한점의 불꽃이 저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호전세력들이 이 땅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의 상상을 초월한 반



조국통일대전에서 정춘의 기상과 응명필질 일념으로 불타는 청년대학생들 —평양건설전재대학에서—

목망은 압박자들의 단말마적발악

최근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려놓고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직경에로 몰아갔다.

방대한 무력과 최신전쟁장비, 많은 주종세력인 유원년 이번 전쟁연습은 북의 중요 전략적거점들에 대한 선제공격과 《집권후의 민사작전》까지 동반한 대규모의 종합적인 북침전쟁연습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냈다.

우리 민족을들로 갈라놓은 미국은 전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틀어쥘 목적밑에 남조선을 저들의 침략전쟁수행의 발판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있지도 않는 그 무슨 《북의 위협》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며 남조선에 침략무력을 대

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군부호전파들을 부추겨 북침을 겨냥한 《키 리졸브》, 《독수리》 등 대규모합동군사연습들을 계단식으로 확대해왔다.

그런가하면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에 편승하여 동족대결을 고취하면서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려왔다.

리명박역적패당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핵문제와 《인원》문제를 운운하면서 6.15이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모조리 파괴시켰다. 그것이 동족대결을 격화시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보수패당의 범피적기도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이 《천안》호사건, 연평도사건과 같은 특대형도발행위들을 연이어 조작하고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중상모독하고 특대형국가정치체로를 감행하려 한것은 민족의 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내외의 규탄배격을 하여 이 미 산송장이 된 리명박역과 그 패거리들이 이번에 또다시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었고지만 그것은 멸망을 앞둔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민족의 운명은 결코 외세

와 매국노들의 통각무로 될수 없다.

지난 기간 공화국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책동이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있는 오늘 그 어떤 해설이나 설봉으로써는 조선반도의 긴장과 군사적충돌을 절대로 막을수 없게 되었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파들이 공화국의 거둬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침을 결행한 최악의 군사적도발을 저어온이상 그에 강력히 대응하는것은 자주권수호를 위한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민족의 분열과 대결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정의의 통일대전에 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대전은 이 땅에서 동족대결과 전쟁의 근원을 영연히 끝장내기 위한 거족적인 성전이다. 정의의 위업을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은 겨레는 민족분렬의 오랜 세월 참고참아온 분노를 총폭발시켜 반역의 무리를 흔적도 없이 깨끗이 쓸어버리고 이 땅을 온전케하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오영철

한정점을 넘어서는 한계도 있다

남조선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결탁하에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광란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이 막을 내리었다. 그러나 침략전쟁연습이 뿌려놓은 화약내는 가세지지 않았다. 군사연습의 마감인 동족대결책동의 종결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은 그들이 추구해온 《합》에 의한 정책, 《체제통일》 야망의 필연적산물이다.

둘이코보인 미국과 남조선의 강경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남조선에서는 북침전쟁연습이 그칠새없이 벌어졌다.

지난 세기 50년대 미국은 리승만도당을 부추겨 38선일대에서 북침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에 미쳐달려다다 갔는데는 조선전쟁의 불길을 터뜨렸다.

전후에는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에 따라 《포커스 렌즈》, 《독수리》, 《울지 포커스 렌즈》 등 각종 명색의 합동군사연습이 해마다 벌어졌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매해 진행된 《팀 스피리드》 합동군사연습은 무려 한 개 전쟁을 넘겨 치를수 있는 수십만의 병력과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총동원되어 2~3개월간에 걸쳐 진행된것으로 하여 악명을 떨쳤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이러한 전쟁연습이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자 1990년대에 들어와 《연합전시중원》, 《독수리》, 《울지 포커스 렌즈》 등으로 명칭만 바꾸어가며 전쟁연습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연합전시중원》,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울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을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으로 바꾸어 해마다 발광적으로 강행하였다.

더우기 남조선에서 리명박 보수세력이 집권한 후 북침전쟁연습은 그 어느때보다 화약내를 더 짙게 풍기며 악

할하게 감행되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리명박은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선임자들과는 달리 국방부와 전방부대부터 찾아다니며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하며 그러자면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다고 떠들어댄 전쟁호전파이다.

《불과 50km거리에 가장 호전적인 집단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위험도 무릅쓸 단단한 각오를 가지라.》, 《백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는 등 호전파 리명박의 로골적인 대결선동에 따라 《3일만 참으면 전쟁이 끝난다.》는 착언이 남조선호전분자들속에서 뼈저리게 튀어나왔다.

보수집권층의 이러한 의도에 따라 《실용정부》가 등장한 이후 첫날부터 최대규모의 합동화력시범훈련, 대규모민속기동훈련, 대규모레이다이동전개훈련, 최대규모의 공중강습훈련, 대규모해상훈련합훈련, 민간비행장들과 비상활주로의 전투기리착륙훈련, 공중급유훈련, 예비군지격수훈련, 민간기업들의 수송훈련, 민간방공대호훈련 등 대형색색의 최대급전쟁연습이 매일과 같이 벌어졌다.

훈련지역도 서울이북지역으로 점차 옮겨 주로 군사분계선전방지역과 조선서해 5개 섬을 비롯한 해상경계선수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감행된 남조선군의 연평도포사격훈련은 북침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도발이었다.

전 남조선국방부 장관이 2010년 5월 22일에 있는 군부회의에서 《서해 5개 섬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전군의 전투력을 동원해 북의 발전기지자세를 타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실토한 사실은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된다.

리명박 《정권》에 의해 《주적》론이 다시 부활되는 속에 남조선군의 《정신교육》에서 북은 《가장 핵심적인 적》으로 규정되고 일상적인 훈련과 경제근무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교들이 사병들에게 《대적편》을 읽어주는 일과를 거처야 하며 사병들은 《우리의 적은 북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선서와 결의문을 의무적으로 외워내것이 제도화되었다.

《승공통일》의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힌 호전무리들이 감히 침략의 불길을 터뜨린다면 공화국은 만장약된 무진막강한 멸적의 힘으로 침략자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안길것이다.

공화국의 이러한 립장은 앞으로 남조선에서 그 누가 집권하든 결코 달라질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특별지원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남조선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결탁하에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광란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북침전쟁연습이 막을 내리었다. 그러나 침략전쟁연습이 뿌려놓은 화약내는 가세지지 않았다. 군사연습의 마감인 동족대결책동의 종결을 의미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은 그들이 추구해온 《합》에 의한 정책, 《체제통일》 야망의 필연적산물이다.

둘이코보인 미국과 남조선의 강경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남조선에서는 북침전쟁연습이 그칠새없이 벌어졌다.

지난 세기 50년대 미국은 리승만도당을 부추겨 38선일대에서 북침전쟁연습과 군사적도발에 미쳐달려다다 갔는데는 조선전쟁의 불길을 터뜨렸다.

전후에는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에 따라 《포커스 렌즈》, 《독수리》, 《울지 포커스 렌즈》 등 각종 명색의 합동군사연습이 해마다 벌어졌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매해 진행된 《팀 스피리드》 합동군사연습은 무려 한 개 전쟁을 넘겨 치를수 있는 수십만의 병력과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총동원되어 2~3개월간에 걸쳐 진행된것으로 하여 악명을 떨쳤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이러한 전쟁연습이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자 1990년대에 들어와 《연합전시중원》, 《독수리》, 《울지 포커스 렌즈》 등으로 명칭만 바꾸어가며 전쟁연습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벌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연합전시중원》,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울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을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으로 바꾸어 해마다 발광적으로 강행하였다.

더우기 남조선에서 리명박 보수세력이 집권한 후 북침전쟁연습은 그 어느때보다 화약내를 더 짙게 풍기며 악



멸적의 의지를 안고 불꽃튀는 화차수리전투를 벌이고있다. —평양조차장개혁화차대에서—

제 2의 《경술국치》를 재현하기 위한 경로강탈책동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를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한일합병》을 강요한 그날로부터 102년이 되었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리조봉건정부의 외교권, 군사통수권과 사법 및 경찰권을 강탈해낸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위협과 공갈로 이른바 《합병조약》을 날조한 다음 우리 민족의 반일항거가 두려워 그때로부터 한주일후인 8월 29일에야 《조약》을 공포하였다.

비법적이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조선강점을 합법화한 일제는 《일본법에 복종하던가 아니면 죽어라 한다》는 날강도적인 논리속에 인류역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혹독한 식민지과속독압통치를 실시하였다. 하여 우리 민족은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 속에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였다.

식민지통치 40여년간 일제는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강제연행, 랍치하여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에 끌고갔고 100여만명을 학살하였으

며 20만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들었다. 그뿐아니라 일제는 조선인 죽말살을 노리고 우리의 말과 글, 이름마저 빼앗으려고 날뛰었으며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들과 자원을 파괴, 약탈하는 만행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참으로 일본의 과거 조선강점력사는 민족멸살을 노린 전대미문의 살인과 약탈의 역사,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의 역사였다.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엄청난 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패망후부터 오늘까지 우리 민족에게 사죄와 보상은커녕 침략력사를 합리화하면서 과거에 못지 않은 정신, 물질적죄악만을 되새겼다.

《우끼시마마루》의 폭침으로 패망의 앙갚음을 시작한 일본은 1950년대 조선전쟁에 앞장서 뛰어들었으며 전후에는 조선문제에 사사건건 끼여들어 갖은 책방을 다 놓았다.

일본은 과거 범죄에 대한 정당화와 역사외곡, 공화국

에 대한 집요한 제재책동과 총련탄압소동, 군국주의, 국수주의감정을 고취하는 《야스쿠니신자》참배의 정례화 등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광분하여왔다.

특히 최근 날이 갈수록 더욱더 횡포해지는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그들의 책망야망을 변함없이 나타내놓고 있다.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단순히 그들의 무지나 도덕적저열에서 생긴것이 아니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명도문제만큼 예민하고 심각한 문제는 없다.

독도가 지리적요인으로 력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실공히 우리 나라의 명토라는 것은 이미 확증되었다. 그런 것만큼 일본은 《독도문제》를 운운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뻔뻔스럽게도 《독도령유권》을 계속 주장하는것은 예민한 명도문제를 들추어 조선제침의 포문을 열자는데 그 속심이 있다.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조

선제침전쟁의 전주곡이다. 오늘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전쟁세력, 침략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전범국 일본은 법적으로 전쟁무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일체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오늘 일본은 전쟁무력을 규제한 헌법조항은 유명무실한것으로 되돌아갔다.

오히려 들어와 일본이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고 《원자력기본법》의 수정으로 핵무장화의 길을 터놓는 사실과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려고 날뛰고있는 사실이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에 있어서 이제 남은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는것뿐이다.

일본의 첫째가는 해외침략 대상은 조선반도이며 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놀음이 바로 독도강탈책동이다.

일본은 과거 일제가 그려왔던것처럼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조선반도를 발판으로

머칠전 남조선의 통일부 장관 류우익이 어느 자리에서 《통일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항아리가 꼭 채워지면 북의 핵무기보다 강하다. 핵무기는 못하지만 통일항아리는 통일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라는 케변을 늘어놓았다.

그때도 명석이 통일부 장관이란 자가 통일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어떻게든 베를린진대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할수 없다.

공화국의 핵역력력이 미국의 핵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자위의 역력력이 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류우익이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공화국의 핵역력력을 제가 고

안해낸 《통일항아리》와 비교의 대상으로 놓은것은 자기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항아리》가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는것도 룬의 할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케

케 변이더니 통일부 장관은 감할수 없다

안해낸 《통일항아리》와 비교의 대상으로 놓은것은 자기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항아리》가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는것도 룬의 할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케

며칠전 남조선의 통일부 장관 류우익이 어느 자리에서 《통일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항아리가 꼭 채워지면 북의 핵무기보다 강하다. 핵무기는 못하지만 통일항아리는 통일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라는 케변을 늘어놓았다.

그때도 명석이 통일부 장관이란 자가 통일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어떻게든 베를린진대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할수 없다.

공화국의 핵역력력이 미국의 핵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자위의 역력력이 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류우익이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공화국의 핵역력력을 제가 고

안해낸 《통일항아리》와 비교의 대상으로 놓은것은 자기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항아리》가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는것도 룬의 할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케

변이다. 나라의 통일이 근 7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것이 과연 《통일항아리》같은 것이 없어서인가.

우리 민족에게는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진속대단결 10대 명령, 고려민주헌법공화국창립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헌장이 있으며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 10.4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었다면 조국의 통일은 눈앞에 다가왔을것이다.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들을 부정하고 그 실현을 가로막아진대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할수 없다.

공화국의 핵역력력이 미국의 핵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자위의 역력력이 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류우익이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공화국의 핵역력력을 제가 고

안해낸 《통일항아리》와 비교의 대상으로 놓은것은 자기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항아리》가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는것도 룬의 할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케

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적이 재발 저러하는 격이다. 류우익의 이 말은 《통일항아리》놀음의 유희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스스로 고백한 말이다.

보수세당이 지난 5년가까운 기간에 통일을 위해 한 일이란 꼬물만금도 없다. 그들이 한것이 있다면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협력교류와 인도주의사업까지 다 가로막아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간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영입을 해마다 여러차례나 벌여놓다 못해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천추에 용서받을수 없는 민족반역죄, 특대형범죄까지 저질렀다.

통일이 아니라 분렬을, 평화가 아니라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해온 이력자들이 어리석게도 《통일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통일항아리》제작놀음을 벌이는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류우익이 말장난이나 부린다고 하여 《통일항아리》에 담겨져있는 《체제전복》과 《흡수통일》의 흡입을 감출수 없다.

참울성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우리 겨레는 반동일세력의 광기어린 대결과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최석현

최근 남조선에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이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온갖 모략과 기만전공세에 열을 올리고있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인 안철수에 대한 보수세력들의 비난과 집중공격이 이를 잘 보여주었다.

안철수로 말하면 지난 시기 의학자에서 컴퓨터전문가로, 기업이 성 세것에 부단히 도전하여 성공한 사람으로서 현재는 학계에 몸을 담고있으며 아직 《대통령선거》에 공식 출마한 사람도 아니다.

이러한 안철수가 본의는 타의든 사람들의 물망에 계속 오르며 《대통령》 후보감으로 지목되고있는것은 그가 써어빠진 남조선정치에 몰리지 않은데 있다.

더우기 그는 지난해에 출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때 대한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에게 양보하여 그가 당선되게 함으로써 민심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있다. 이러한 속에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남조선인민들의 초점을 모으고

있는 안철수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의 여론조사기관들이 여러차례 걸쳐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음기 《대통령》으로 안철수가 적합하다는 자료가 계속 제기되고있는것은 이에 대한 단적실례이다.

결국 안철수는 재집권야욕을 실현해보려는 보수세력들에게 눈에 든 가시가 아닐수 없다.

이로부터 보수집권세력들은 안철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지난해의 서울시장 《선거》때처럼 《대통령선거》관이 아예 민주개혁세력만으로 뿔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에 대한 음해와 비난, 모략 등 검은 마수를 뻗치고있다.

보수세당은 안철수의 인기를 떨어뜨릴수 있는것이리판든 모든 작든 가지 않고 부단히 여론화하면서 불신감을 조장하여 나중에는 안철수가 제풀에 주저앉도록 하는 이른바 《가랑비작전》(서서

히 내리는 가랑비에 온몸이 젖도록 한다)는 뜻에서 유래된 검조작전)을 고안하고 그 실행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지난 시기 안철수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재벌 2, 3세들과 함께 인터넷신문은행설립에 참가하였다느니, 기업확장을 위해 부정부패에 앞장섰느니, 《안철수연구소》를 경영하면서 친인척들을 동용하였다느니 등 가지 부정부패의혹들을 조작하여 그 누가 민권, 안민권 계속 류포시키고있다.

지어 그의 인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없는 사실까지 날조해내고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최근 《새누리당》이 여론화하고있는 안철수의 유희술집출입문제이다.

《새누리당》은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안철수가 지난 시기 유희술집에 출입하면서 어떤 여자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었다고 소란을 피웠지만

그로 인해 드러난것은 《새누리당》이 보수당과 함께 벌인 불법방법의 민간인법률사찰사건과 안철수의 청렴본사였다. 그것도 그렇것이 경찰당국이 지난해초 민간인에 불과한 안철수에 대한 뒤조사를 하면서 재벌 2, 3세들과 함께 인터넷신문은행설립에 참가하였다느니, 기업확장을 위해 부정부패에 앞장섰느니, 《안철수연구소》를 경영하면서 친인척들을 동용하였다느니 등 가지 부정부패의혹들을 조작하여 그 누가 민권, 안민권 계속 류포시키고있다.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저들의 상투적인 수법대로 안철수에게 《종북》감투까지 뒤집어 씌워 그를 정치적으로 파멸시키려 획책하고있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안철수연구소》가 북에 그 무순 콤포터비무사출입프로그램을 통일부의 승인없이 제공하였다는 날조된 자료를 가지고

며칠전 남조선의 통일부 장관 류우익이 어느 자리에서 《통일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통일항아리가 꼭 채워지면 북의 핵무기보다 강하다. 핵무기는 못하지만 통일항아리는 통일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라는 케변을 늘어놓았다.

그때도 명석이 통일부 장관이란 자가 통일문제를 대하는 관점이 어떻게든 베를린진대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할수 없다.

공화국의 핵역력력이 미국의 핵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자위의 역력력이 라는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류우익이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공화국의 핵역력력을 제가 고

안해낸 《통일항아리》와 비교의 대상으로 놓은것은 자기의 무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항아리》가 통일을 가능하게 한다는것도 룬의 할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케

유치하고 비렬한 음해소동

《4대강살리기》가 몰아온 재앙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런 강으로 태어났습니다.》, 《4대강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골고루 살아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4대강 새물결맞이행사》라는데서 한 남조선정권자의 말이다.

그런데 4대강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알려진것처럼 지난 6월말 시작된 북한강과 랍동강의 복조현상은 4대강의 모든 류역으로 확산되어 생태환경을 심히 파괴하고있다.

악취나는 남조류의 대량증식으로 4대강은 강한 독성을 띤 강으로 오염되고 이로 말미암아 물고기들이 죽는것은 물론 인민들의 먹는물보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이번 4대강에서 발생한 복조현상은 한갓 자연재해가 아니라 리명박 《정권》의

의 《4대강정비사업》이 몰아온 인재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일찌감치 견해이다. 일리가 있는 소리이다.

일반적으로 복조는 고인물이나 속도가 느린 강에서 발생하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시기 잘 나타나지 않던 복조현상이 최근에 들어와 대대적으로 나타나고있는것은 리명박 《정권》이 《4대강정비사업》으로 강둑을 강구 파헤치고 막고 하여 강물을 고인물로 만들거나 또 그 영향으로 강물흐름의 속도가 떨어져 나타나고있다는것이 환경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원래로 안동에서 부산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과거 18일 걸리던것이 지금은 180일로 무려 10배나 떠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리명박은 4대강에서 발생한 복조현상에 대하여 《장기간 비가 오지 않고 폭염이 지속돼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복조현상이 《4대강사업》과

는 관련이 없는듯이 발언하는 등 책임회피에만 일관했다. 이것은 가뜩이나 불만이 큰 남조선 각계인사들과 인민들의 심한 분격을 자아내고있다.

고인물에 복조가 살판나고 한강과 랍동강의 복조증식은 강물의 흐름을 막아 체류시간을 증가시킨 《4대강정비사업》이 빚어낸 산물이다.

그러고도 《4대강정비사업》을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런 사업이였다고 호언장담했더니... 도대체 잘 호언장담을 해서 4대강을 《살렸》다는게 결국은 살리게 아니라 죽인것이나 다를바 없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 인사들과 인민들은 《(복조현상은) 강물의 흐름을 막은 오만인 양의 재앙이다.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것이만이 해법이다.》, 《홍수나 가뭄, 기상이변에 대응하지 못하는 《4대강정비사업》은 고장난 사업이다.》, 《리명박 《정부》는 자연파괴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강한 분격을 터뜨리고 있다.

리명박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이 몰아온 재앙은 비단 복조현상뿐이 아니다. 리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귀를 막고 독선과 강행으로 다그쳐온 《4대강정비사업》의 결과 강화현상과 복조 등 생태계를 파괴하고 4대강정비사업이 홍수에 더욱 취약해졌으며 지하수수질도 더럽나 위없이 나빠져 사람들의 생명에까지 큰 위협을 주고있다. 거기다 공사기간 각종 사상사고로 생긴 인적, 물질피해와 귀중한 력사유적, 유물들의 대량파괴, 홍수, 침수 등 (농지침수 및 지하수위변동 등), 식수오염(수질오염) 등 삼수의 대양까지 겹치며 복조현상을 비롯하여 각종 재앙을 몰아온 《4대강정비사업》이다.

리명박 《정권》이 콘몸에 방, 수질개선, 지방경제활성의 간판을 내걸고 《4대강정비사업》을 최대의 치적이자 도전사업으로 벌려놓았지만 결국에는 《4대강사업》이 강사업이 아니라 부동산사업의 수단이였고 1%의 가진자들의 배를 불리우기 위한 형세 랍비사업이었다는것이 이제 와서 더욱 명백해졌다.

민심을 등지면 하늘이 노한다.

사람들이 죽든 살든 관계 없이 자기의 치책만 올리려 더 급급한 리명박의 《4대강정비사업》이 오늘 심각한 복조현상을 불러왔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재앙을 몰아오겠는지 이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김원일

기만적인 《공약》 놀음 누구에게 통할가

최근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새누리당》이 민심을 끌어당기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그중의 하나가 이 당이 또 다시 들고나오는 《반값등록금》 문제이다.

얼마전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박근혜가 《국회》에서 남조선의 39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들을 모아놓고 《반값등록금토론회》라는것을 벌려놓았다.

그는 여기에 젊은 대학생들속에서 류행되는 청색사프와 면바지를 입고 나타나 대학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시절에 등록금 문제로 정신이 아답다느니,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생각이 든다느니, 등록금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의지가 있다느니 하며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의 이 말에 호응하는 대학생들은 하나도 없었다. 그는 대학생들에게 일일이 다가가 억지로 웃음을 짓고 두손을 받쳐서 약속을 청한다, 우스개소리를 한다 하며 참가자들의 환심을 사하려고 무진에 찌지만 헛웃음만 했다.

오히려 토론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이 《새누리당》의 당론이 맞는가.》, 《웨쳐바이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만다.》고 울분을 터치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리용하지 마라.》고 항의하였다.

바빠난 박근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듣겠다.》고 하고는 다음일정을 핑계로 황급히 토론회장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를 두고 시사평론가들과 전문자들은 박근혜가 20~30대의 젊은층으로부터 배척을 받고있다는것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뚜렷히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그가 《반값등록금》 실현이, 《경제민주화》니 하는 《선거공약》들을 내놓았지만 그것들 민심이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있다고 평하고있다.

너무도 엉당한것이다.

알려진것처럼 《반값등록금공약》으로 말하면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때 리명박이 들고나온것이였다. 그때 리명박은 《반값등록금》(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었다.

리명박 리명박에게는 그것을 실현할 의지도, 대책도 없었다. 단지 수많은 대학생들과 부모들이 엄청난 등록금문제로 고통을 받고있는 현실을 악용하여 그들로부러 지지표를 끌어모을 심산으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영리 들 앞에서 내뱉었을뿐이다.

사실상 리명박은 집권하자마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고 뒤집는가 하면 《반값등록금정책에 대한 의

견이 분분하다.》,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의 교총을 리해한다.》는 어찌구무없는 말만 늘어놓으면서 《대학자문화》, 《국립대학의 민영화》 등과 같은 부당한 정책들을 줄줄이 내놓아 등록금인상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2010년에만도 등록금은 5년전에 비해 국립대학은 20%, 사립대학은 30%나 뛰어 올랐으며 이로 하여 한 학생이 부당해야 할 등록금은 평균 1천만원을 넘어섰다.

이뿐이 아니다. 리명박은 등록금문제를 해결해줄 대신 대학들에게 《정부》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지불할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학자금대출제도》라는것을 내와 그들을 빚더미에 올려앉혔다.

하여 지난해 4월 현재 3만 명이 훨씬 넘는 대학생들이 많은 빚을 갚을수 없는 신용불량자로 굴러떨어졌으며 학생들이 대출받은 학생들이 갚아야 할 평균 빚은 1353만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 등록금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 되자 보수집권세력은 《반값등록금》을 거론조차 한적이 없다.》고 아예 나자빠졌으며 이로 하여 남조선 각계의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등록금완화정책》이라는것을 내놓고 민심을 우롱하였다.

보다싶이 보수집권세력의

《반값등록금공약》은 민심을 끌어당겨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한갓 기만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박근혜가 또다시 꺼낸 《반값등록금공약》에 어찌 침을 뱉고 돌아서지 않았는가.

지금 정치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 박근혜를 두고 《대통령》 후보로 나선 그의 모습에 수감수 5년전 《대통령선거》 때의 리명박을 닮아가고있는데 있다. 리명박의 가장 큰 단점인 불통이민지위와 권력사유화, 각종 비리에 대한 꼬리자르기과 시간끌기, 기만적인 공약을 랍발하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MB를 보면 박근혜를 볼수 있겠다.》고 평하고있다.

적어서 말한다면 박근혜가 5년전 리명박이 《대통령》 감투를 뒤집어쓰기 위해 《경제살리기》니 《반값등록금》이니 하며 인민들을 기만했던 그때의 전철을 다시 밟고있다는것이다.

보수세당의 흉고 서툰 방법은 이제 더는 통할수 없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선거》를 노리고 그 무슨 《변화》에 대해 떠들며 민심기만용 《공약》들을 랍발하고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보수세력의 파멸치한 정제만을 더욱 드러낼뿐이다. 리현호



전문가 진단 및 독수수 발명상 시상식 4대강 복조현상, 재앙의 시작

《유신》 잔당 청산을 위한 투쟁의지 표명

남조선의 4월혁명을 비롯하여 민족통일운동계승사회를 비롯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8월 2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신》 독재를 비호하는 보수세력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10월유신》이 조작된 때로부터 40년이 되어온다고 말하며 《유신정권》이 독재통치를 실시하며 민중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최근 박근혜가 이

를 정당화하며 독재세력의 반민중적죄행을 덮어버리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악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1960-1970년대 박정희의 군사독재를 반대하여 싸웠던 민주인사들이 파쇼독재의 부

활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하면서 《유신잔재청산과 력사정의를 위한 민주행동》(민주행동)을 결성하는데 대해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독재부활과 력사외곡에 날뛰는 《유신》 잔당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